고척교회 예배 안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좋은 교회"

◆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하절기) 꿈터 채플(동절기)
	2부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3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30	5층 세미나실

◆ 교회학교 안내

새싹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1층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1·2부 (초 1~3학년)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지하
소년1·2부 (초 4~6학년)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 상담실: 매주 (화) 오전 10시~오후 5시 Tel. 080-686-5871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척교회 GOCHEOK PRESBYTERI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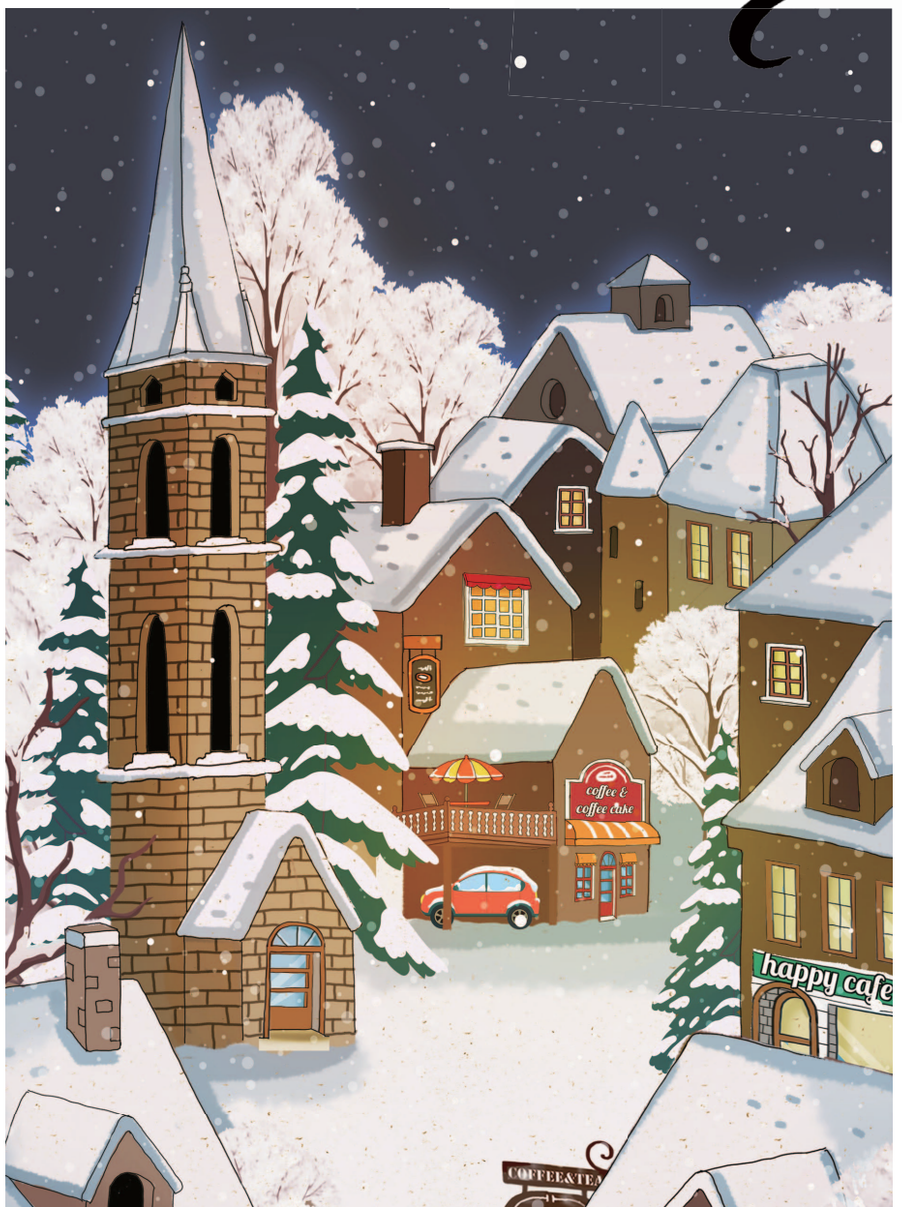
1979년 4월 15일 창간 | 계간 | 제43권 제1호 통권 240호 | 2023년 12월 25일 발행 | 고척교회 역사홍보팀

우물가 Vol.240 2023 / Winter

우물가

Vol.240

2023 / Winter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에레미야 33장 3절





우물가

2023 Winter Vol.240

1979년 4월 15일 창간 | 계간
제43권 제1호 통권 240호
2023년 12월 25일 발행
고척교회 역사홍보팀
http://new.gocheok.or.kr

발 행 인 | 차동혁 **지 도** | 김재광 **부 장** | 유제웅 **팀 장** | 이재만
편집위원 | 김숙희·이철현·김영남·이은경·이윤아·변숙영·임동선
고척교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 Tel. 02.2686.5871~3 Fax. 02.2684.7677

마음을 전하세요!!

고척교회 '우물가와 함께 사랑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전해 보세요.

To.

From.

CONTENTS
차례

002 담임목사 칼럼 ····· **“내 아들 내 딸은 꼭 찾는다”**

004 기획특집1 ····· **2024년 새해 주요 목회 방향**

008 기획특집2-1 ····· **전교인 40일 기도운동**

014 기획특집2-2 ····· **전도축제 간증**

016 우물가 Twitter ····· **37년의 교사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고난 중에도 감사
산골마을 성탄절과 새로운 섬김의 자리
선물
나는 행복한 소년2부 행정 쌤!
기쁘고 설레고 보람찬 사역
가슴으로 쓰는 편지
■ 사랑하는 아들, 승우를 위한 기도
■ 감사드립니다!

034 책, 알고싶다 ····· **[그림책] 만년샤쓰 |** 방정환

036 교육, 그거 쉬워요 ····· **말의 힘**

038 여유 N 힐링 ····· **도심 속의 공원 |** 〈센트럴 파크〉

050 우리 교회는? ····· **각 부서 이야기**



020


026


032

“내 아들 내 딸은 꼭 찾는다”

누가복음 15:4~6



차동혁 담임목사

지난 금요성령집회 때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에 경험한 은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며 묵상된 점이 있어서 간증 후에 강단에 올라가 잠시 나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종종 다니던 길에 항상 걸려 있던 현수막 이야기였습니다. 현수막 내용은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입니다. 25년 전 고등학생이던 딸이 실종된 이후 딸을 찾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가 걸어놓은 현수막입니다.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TV 프로도 여러 번 소개된 사연입니다.

그날 강단에서 제가 짧게 드렸던 묵상 내용이 이것입니다. 딸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은 아닐까? 우리가 건네는 전도지 한 장이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현수막이 아니겠나! 그러기에 지난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 섬기시고 전도에 힘쓰신 많은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납치사건으로 분류된 송혜희 양의 사건은 15년의 공소시효가 끝난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실종된 이후 그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홀로 남은 아버지는 지금도 딸을 찾아 방방곡곡 다닙니다. 딸을 찾느라 생업도 포기한 채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수입의 대부분을 현수막과 전단지 제작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집 안에 걸어둔 가훈은 “나의 딸 송혜희는 꼭 찾는다. 아빠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훈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들 나의 딸 ○○○는 꼭 찾는다. 하나님 아빠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눅15:4~6)

저는 이 짧은 비유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리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 양 중에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난 괜찮은 양이고 여긴 안전하다고 자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를 포함해 멀쩡한 아흔아홉을 들어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떠나가신 예수님에게 불평을 터뜨리지는 않는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 곁이 아닐까?’

그렇게 질문하다 보니 아흔아홉이란 안전함과 편안함에 눌러앉고 싶은 저의 욕심이 보였습니다. 또, 이 욕심 때문에 예수님 홀로 떠나시는 멀고 험한 곳, 그 곁을 제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죄송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험지에 계신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 도움은커녕 불편만 끼치겠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해하실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안전한 들판, 아흔아홉의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어디에 계시든, 그곳이 험지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예수님 곁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전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열심히 기도하시며 전도하시는 고척의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 행복은 우리 주님의 행복에 비교하면 조족지혈일 것입니다. 부디, 내 아들 내 딸은 내가 꼭 찾는다고 선포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가시는 주님의 곁을 항상 지키는 우리 고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감사하는 성도, 꿈꾸는 교회"

2024년

새해 주요 목회 방향



김재광 목사(선임목사/화평교구)

고척교회에 2019년 부임해 65주년 행사를 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흘러 2024년 고척교회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24년도를 맞아 교회 표어가 "감사하는 성도, 꿈꾸는 교회"로 정해졌다.

70주년의 세월 동안 지키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해가 되며,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교육과 선교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한해로 준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새해부터 이루어질 주요 목회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감사하는 성도"

1) 올해 40일 기도운동을 진행했던 것에 이어 새해에도 9월 25일부터 40일 감사 기도운동이 진행된다. 감사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
2) 매주 주보에 한줄 감사 제목을 작성한다. 한주의 삶을 돌아보며 한주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다.
3) 70세 이상 은퇴하신 성도님의 인터뷰 영상 제작을 시작한다. 평소에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도 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도 된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해도 좋다. 이렇게 준비된 인터뷰 영상은 훗날 인터뷰를 남긴 성도가 별세했을 때 사용하려고 한다.
4) 교회를 위해 그동안 헌신하신 70세 이상 성도님들과 함께 해온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잔치를 하고자 한다. 문화 공연 및 식사를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5) '65주년 때 함께 했던 전교인 체육대회가 70주년을 맞아 다시

진행된다. 5월 19일 예정이며 체육대회를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꿈꾸는 성도' 중 교육에 대한 내용

1) 2월 마지막부터 한주 동안 자녀 축복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한다. 새 학년을 맞이한 자녀들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굳게 서길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2) 새해에는 새가족 양육부에서 양육부가 분리되고 양육부와 행복 사역부가 합쳐져 새롭게 『제자양육부』가 신설된다. 『제자양육부』를 통해 교구 담당 목사와 소그룹 양육이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된다.
3) 미취학 아이들(영아부~유치부)을 대상으로 매 주일 오전 9시 새싹부 예배가 신설된다. 기존 유아1부와 유치1부가 포함되어 새롭게 리모델링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
4) 교회 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부 예배가 신설된다. 아직 준비 모임 단계이지만 사랑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부모들이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는 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셋째로 '꿈꾸는 성도' 중 선교에 대한 내용

1) 9월 초에 성지순례를 진행한다. 이스라엘 내 전쟁으로 인해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다녀오고자 한다.
2) 다양한 선교 모임을 조직해 운영하고자 한다. 부부나 미혼의 성도들 또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선교 모임을 조직해 국내외 선교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추가로 금요성령집회 때 교회 찬양 사역을 담당하는 세분의 목사님이 함께 매주 찬양을 하며 좀 더 다양하고 활기 있게 예배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분기별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 말씀도 들으며 부서의 필요에 따라 특별 기도회도 진행된다.

코로나 이후 70주년을 맞는 2024년은 그동안 멈췄던 사역들도 다시 진행하고 새로운 사역들도 시작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한해를 향해 감사의 70년, 꿈꾸는 100년을 외치며 희망차게 전진하는 고척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HAPPY NEW YEAR

"나의 한줄기도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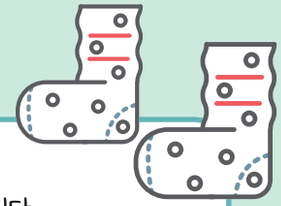
고척교회『전교인 40일 기도운동』을 통해 묵상과 기도의 은혜를 맛보면서, 삶의 광야에서도 감사,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 크고 작은 응답에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하며 절망의 태풍 속에서도 희망의 연을 날렸던 지난여름과 가을 사이『전교인 40일 기도운동』을 통한 성도님들의 축복 가득한 응답을 담은 한줄 기도문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23년 우리교회 표어인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의 실천방안으로 진행되었던『전교인 40일 기도운동』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갔으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공동체로 거듭나 온전히 세워졌고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누렸던 "나의 한줄기도 간증"을 모았습니다. [글. 이재만 편집팀장]

-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 시력이 안 좋아 밤이 무서웠는데 잘 다니게 해주심 감사!
- 혼자 살아도 주님과 가족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 여호와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오늘도 채워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 게으름과 피곤함 이겨내고 예배 자리로 인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 죄를 회개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 주님보다 앞서는 일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와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감을 기억하고 이러한 꿈을 갖게 하소서
- 아름다운 장막 주심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 목장원들의 삶에 기쁨의 간증이 있게 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영의 눈과 귀가 되게 하소서.
- 내 눈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행하실 계획을 기대합니다.
- 기도의 열정이 되살아나 주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 저에게 겸손함과 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 기도에 힘쓰고 늘 하나님과 예배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아팠던 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새벽기도를 매일 참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에 우선의 삶을 살게 하소서.
- 기도에 집중하고 힘을 다해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 매일 매일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 예수님의 인도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엘리야의 순종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딛게 하소서.
- 두 딸들이 지금까지 매일 같이 기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보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 새벽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자신을 재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성실! 매주 친구 삼은 교회 식구들과 주님 안에 교제함이 기쁨입니다.
- 모든 예배와 기도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40일 기도 운동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많아 감사합니다.
-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거룩한 한 주를 감사합니다.
- 매일 새벽기도를 하며 내 생활이 조금씩 겸손하게 됨을 느낍니다.
- 기도로 살아가길 결단하게 하옵소서.
- 잠자기 전 아이들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새벽예배에 남편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드려요.





-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은혜의 순간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 신앙 점검표가 신앙을 정돈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 감사합니다.
- 아침에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큰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작은 기도 제목도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 피곤과 바쁨 속에서 하나님의 교류는 끊이지 않게 함에 감사합니다.
- 아이들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정오빠,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믿으며 살아나셨습니다.
-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 미워하는 사람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기도하는 자로 두려워하는 자 아닌 두려운 자로 서겠습니다.
- 평생을 기쁘게 찬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렸는데 연락이 와서 감사합니다.
- 올해 처음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말씀보다 더 즐겨했던 것을 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너무 절실하게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 근무 중 당황스러운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나의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 직장에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 마음에 평온과 건강을 조금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 기도제목이 많은데 기도를 게을리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 매일 기도가 습관이 되어 이제 안하면 허전하게 되었습니다.
-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 평생 괴롭혔던 어두움이 떠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소서.
-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잠언의 말씀이 아내가 나의 면류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 문 닫게 된 회사가 다시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난 6개월 동안의 기도로 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 사랑하는 분들의 기도로 오랜 지병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 나의 요새이니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 회복되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듯 하심에 감사합니다.
- 주님의 참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40일 기도 하게 하시고 응답 주신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 분주한 삶 가운데 뜰 안을 찾아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 단잠을 자게 하시고 위급한 상황을 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 40일 새벽기도 감사하오며 기도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 가장먼저 예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주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 마음이 작정한 순간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 아이 장학금으로 필요를 채우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 수입이 없어 걱정할 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느끼며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 하나님 일하심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 웅얼거리는 기도 들어 주시고 살아갈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 열심히 움직여 나의 삶을 살게 하심 앞으로도 축복해 주세요
- 나의 눈물, 나의 눈물의 기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 한결 같은 나의기도 그 아들 구원하소서.
- 미워했던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하기에 감사합니다.
- 불안과 두려움 없애시고, 불면증 사라져 꿀잠 자게 하심 감사!
-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생명전도축제를 마치며

우리교회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권정희 권사(행복전도대 팀장/화평4)

작년(2022년) 하반기 아이파크 입주 전도를 통해 전도대 부흥과 토요팀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긴 코로나로 사역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을 무렵 긴 잠에서 깨 듯 전도대 임원들은 생기가 날 만큼 기쁨으로 입주 전도 물품을 준비했다. 몸도 마음도 분주했다. 동별 전도자원자를 신청받기 시작했다. 현재 전도대를 중심으로 전도학교, 중보기도학교수료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중심으로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일일이 전화로 독려해 주시길 요청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요팀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토요팀장 우은희 집사님을 세우게 되었고 젊은 집사님과 직장인, 장로님 권사님들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는 6월 상추 전도가 시작되었다. 상추전도는 작년부터 주님!! 상추전도하고 싶어요. 노래를 불렀고, 올 2월 부천 사무실 앞 400평 땅주인이 한 해 동안 농사지을 사람을 찾고 있었다. 주님이 제게 주신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기로 했다. 그래서 시작된 상추전도. 전도대원들이 함께 봉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상추 전도는 줄을 서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즐거워 하셨다.

7월은 생수전도를 하게 되었고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전도용 건빵과 관계전도용 세트로는(쓰레기봉투, 물티슈, 유한락스)가 큰 인기 전도 물품이었다. 모든 전도비용이 후원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여호와이레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전도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께 나는 외쳤다.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주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 확신 가운데 내가 적은 전도대상자 3명,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한분이 목장식구 남편 이었다. 집사님께 목요일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다. 식사를 하던 내내 어떻게 꺼내볼까 하다가 한충성 목사님께서 체면 전도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 한 번 해 보자!

새 생명 전도 축제를 마치고 열심히 뛰었으니 이제 좀 쉬자 집에 오니 게을러지고 싶어졌다. 이제는 조용히 있자 했는데 다시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래 하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새로운 와플전도가 시작되었다.

전도로 열심히 뛰어주신 금요, 토요팀 전도대 그리고 수요일 주일 피켓전도 교구와 항존직 모든 분들 담임목사님사모님, 부목사님사모님 함께 동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과 물품으로 도와주신 남·여 선교회와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역은 뭉클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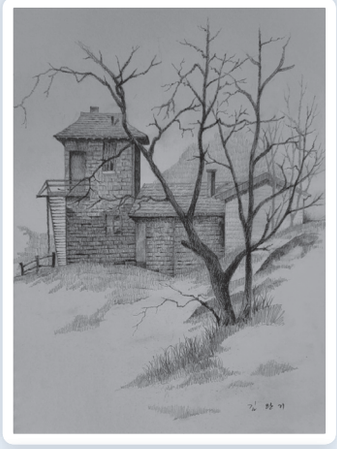


37년의 교사생활을 마무리하고

김완기 안수집사('24년 안수집사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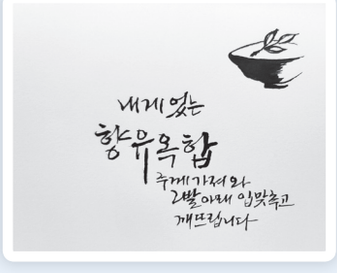


강물이 흐르듯이 시간이 흘러 낙엽을 떨구고 자양분을 땅으로 보낸 한 그루의 나무처럼 올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날을 반추하여 봅니다. 37년의 교사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터전인 중학교지킴이 봉사를 하며 틈틈이 책을 읽고 붓으로 캘리그래피 연습과 연필그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감사였습니다.



남보다 일찍 등교하여 운동장청소 및 잡초제거를 하고 등하굣길에 안전요원으로 한낮에 정원에 물주기를 하며 교문 앞을 오가는 동네분들과 학생들에게 인사를 나누고는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동네분들이 말동무가 되어서 따듯하게 맞아주시고 학생들도 살갑게 다가옵니다.

덕필고필유린(德必孤必有隣)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지요, 덕을 쌓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학행일치(學行一致) 배운 대로 행함으로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자신을 낮추는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나로부터 실천한다면 주변이 밝아오고 마음이 오가는 이웃이 많아지리라 봅니다.



갑진(甲辰)년 새해에는 교회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수레바퀴는 축을 중심으로 제자리를 돌뿐이지만 수레를 끄는 사람이 있는 한 앞으로 나아갑니다.(이재철목사님 글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축으로 교회 안에서 작은 소그룹들이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문형성 안수집사(사랑13)



매번 기도하고 간구 하기는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보다 앞서 주님께서 해결 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신앙의 내적 갈등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이 있어 동주민센타 동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크고 작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부임지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대인가 싶을 만큼 나에게 있어서 피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에는 500년 이상 된 고목이 존재합니다. 매년 10월이면 음식을 차려 제를 올리고 참여한 주민들에게 떡과 음식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제를 지낼 수 있도록 동장이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례를 올릴 수 있도록 동장이 제사준비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난처한 것은 구청장. 동장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절하는 절차가 있으니 꼭 참석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나 동장은 교회 장로이고 집사인데 구민과 동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고목나무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우상 앞에 절을 할 수는 없어,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려도 동장이 제례를 방해하는 인물로만 소문이 돌아 동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자르라는 민원까지 들어갔지만, 고목에 절하는 것은 독실한 불교신자에게 교회에 가서 대표기도 하라는 것과 같으니 이는 기관장에게 큰 실례가 되는 것이고 동장은 제례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관위에서 제례와 관련하여 깔끔하게 해석을 내려 주었습니다. 제사음식이나 음식물을 참석한 구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동장의 의견이 아닌 선관위의 해석이 더해짐으로 제례만 올리는 것으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우상 앞에 절하는 부분에 있어 구청장은 같은 시간 관내 다른 일정이 있어 그 자리를 피하게 해 주셨고 동장은 몇 몇 제례 위원의 주도로 동장은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되니 괜찮다는 바람이 일어 자연스럽게 해결 되었습니다.

제례 후 동장실에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지난 4개월 동안 그렇게 각을 세우고 긴장했던 관계가 풀리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내면의 갈등 중에도 앞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언16:9)

고난 중에도 감사

이지희(청년2부 마을장 / 워십리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다. 한 번에 오는 고난은 더 견디기 힘들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예배를 찾아다니며 마음을 달래보려고도 했었다. 친구가 물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안 힘들어요? 문제가 해결되나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니, 힘들어. 바로 해결되지도 않고 영적전쟁도 있지” 라는 대답을 하기도 했었다.

나는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며 예배드리기 몇 분 전에 더 쉽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 울면서 예배를 갔을 때도, 불안함을 안고 갔을 때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느꼈기 때문이다. 예배 전에 힘든 나에게도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 소망함을 주셨다.

예배를 드리며 확신이 들었던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나의 방법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됨을 느꼈고, 그로 인해 흔들렸던 나의 신앙은 더 단단해진 신앙으로 바뀌어져 갔다. 고난을 겪은 뒤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감사함이 생겼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신뢰함이 생겼다.

마커스의 “믿음으로 나아가네” 찬양의 가사가 떠오른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가사처럼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되기를 원한다.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도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음악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언어이기 때문이다. 나의 음악활동명인 브리엘라의 뜻처럼 하나님 안에서 뜻을 찾는 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산골마을 성탄절과 새로운 섬김의 자리

김영찬 협동안수집사(사랑13)



2023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송구영신예배를 드린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끝자락에 와있는 모습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가슴이 설레고 빨리 그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때도 있었다. 강원도 횡성 산골마을에서 자란 나는 어린시절 성탄절이 남달랐다.

한적한 산골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12월 중순부터 캐롤송이 울려 퍼지면 주변에 사는 꼬마들과 함께 모여 성탄트리를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추억이 있다. 어릴적 크리스마스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교회에서 주는 푸짐한 선물이었다.

이제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마무리할 시간이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게 된다. 기쁘고 슬프고 힘든 고통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어 늘 함께하시며 위로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여 올 한해 멋지게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

고척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한지도 벌써 만 1년이 되어간다.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던 나와 서울로 대학을 다니던 딸로 인하여 우리가족은 중간지점인 이곳 고척동에 둥지를 틀게 되었고 매주 인천 서구까지 다니던 교회가 너무 멀어 이사온지 2년만에 가까운 고척교회로 이명을 결심하게 되었다.

우리가족을 따뜻하게 이끌어 주시고 세심하게 배려해주시는 교구담당 목사님과 목장 리더님 덕분에 빨리 정착하여 이제는 주일예배 뿐 만 아니라 수요예배 및 금요성령집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다. 지금은 오후 찬양대에서만 봉사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또 다른 봉사를 통하여 새로운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해 본다.

선물

김민강 집사(기쁨2)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해진다. 재작년 크리스마스 즈음 나의 중고등부 교회시절,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난 후 2부 순서로 마니또 종이를 뽑고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교환을 했던 추억이 떠오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성탄절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기에 이번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마니또 선물교환을 해보기로 했다. 다행히 산타클로스의 존재는 커밍아웃 되었기에 아이들도 선물방식에 동의해주었다.

매번 선물을 받기만 했던 아이들도 다른 가족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며 선물포장까지 세심하게 신경쓰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아직 작지만 많이 성장한 것 같고 그 모습이 더욱 기특해보였다.



성탄절 이브에 거실트리 밑에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을 가져다 놓았고 드디어 저녁시간에 가족 모드가 설레는 마음으로 마니또 종이를 뽑으며 서로를 위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탄성과 실망의 소리도 있었으나 그 시간 작은교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재작년이지만 추억이 되어 지금은 그 시간이 선물같이 느껴진다. 또 다른 느낌이겠지만 올해도 해봐야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선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이미 큰 선물을 받았다. 올해도 나눔과 기쁨이 있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소망한다.

나는 행복한 소년2부 행정 쌤!

이지섭 교사(소년2부/기쁨19)

30년 넘게 종교 없는 생활을 하다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사실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가기보단 지금의 와이프를 따라서 참석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4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겨나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는 교회가 편안한 안식처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와이프보다 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소년2부 행정선생님까지 맡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교회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과 믿음을 가지며 성실하게 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기쁘고 설레고 보람찬 사역

손광수 집사(소년부 교사)

제가 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던 초등학교 5학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둘리 탈을 쓴 교회학교 선생님의 뒤를 따라 처음 보는 아이들과 기차놀이를 하듯 산 하나를 넘어서 가게 된 교회에서 처음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잊혀지지 않아 지금 이렇게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년부에서 3년을 섬기다 올해 처음 소년부에서 6학년 친구들을 맞이했을 때 쉴새없이 수다를 떠는 유년부 친구들과 달리 마스크를 쓰고 눈만 멀뚱히 쳐다보는 여자 아이들 앞에서 '아…어떻게 무슨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길지않은 십분이 너무나도 길고 막막했고 문득 소년부 친구들을 가르치려 한건 아닐까 내가 과연 이 아이들과 친해지려 노력은 한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교회학교 세미나에서 어느 교수님의 말씀처럼 가르치려 하지말고 친구가 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조금은 차분하게 그리고 어른답게 다가가려 했던 모습은 모두 버리고 그때부터는 친구들에게 그들만의 게임을 배워 같이 하고 어설프지만 그 친구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사용해보고 그러자 어느덧 마스크 뒤에 숨겨뒀던 예쁘고 귀여운 웃음 가득한 얼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할 날도 몇 주 안남았습니다.



올 한해는 제가 교사로 섬기면서 무척이나 많은 것을 배웠던 한해 인거 같습니다. 동네에서 말썽쟁이로 소문난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하지만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보람찬 사역인지 35년이 지나서야 몸소 체험하고 알게 된 한해였습니다. 교회 나오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만큼 선생님들의 숫자도 매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이들과 더불어 저와 같은 놀랍고 행복한 경험을 같이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승우를 위한 기도



이정현집사·김연숙집사(화평36목장)

동갑내기인 저희 부부에게 오랜 기다림 속에 43세되던 해에 우리가정에
주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 키울 수 있을지 두려움 섞인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이제까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잘나지는 않더라도 누구나 겪는 사춘기도
무난하게 극복하고 어느새 책임감과 의젓함을 보이는 건강한 아들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남성으로 져야할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하여 해군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께서 지켜 주신 것처럼 군에 있는 동안에도 병영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차동혁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11월 6일
씩씩하게 입소하였습니다.
사회에 다시 복귀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군복무 잘하고 대한민국의 멋진 남자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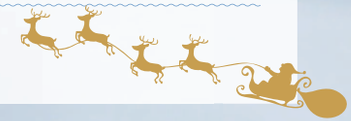
| 군선교사 김강진 목사(5사단)

다사다난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로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고 힘든 한해를 보내고
또 수없이 많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에
오늘을 살아 가는 것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섭리를 기대할 뿐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귀한 고척교회를 통해 군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협력과 귀한 사랑을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귀한 사역의 사명임을 깨닫고
있으면서 코로나 이후 대부분 대대급 교회들이 더 어려워 졌지만
본 교회는 80여명의 장병들이 꾸준히 참석하여 예배드립니다.
군인교회가 거의 헌금은 없고 후원과 선교비로 감당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차동혁 담임목사님의 사역과 귀한 고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귀한 군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신 고척교회 남선교회연합회 회원 여러분들께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척교회가 참 좋습니다

정상원 장로(소망26/'24년 시설부장)





10월 8일 교회 창립 69주년에 항존직 임직식이 있었고 장로 피택자의 신분으로 서약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며" 복창을 하며 서약을 하면서도 마음 한 편 답답하고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항존직 투표의 시간이 다가오며 피택자에 대한 하마평이 돌즈음 나에게 내 마음을 물어 보는 시간이 있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는 아닙니다"란 결론을 지었고 후보명단에 오르는 것을 거부하며 최종투표 후보에서 빼 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에게 바다에 던져지는 위기를 맞게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현장에서의 큰 인명 사고로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힌 요나와도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맞게 하셨고 "하나님 제가 교만 하였습니다" 회개하게 하시었습니다.

1973년 고척교회 등록 후 만 50년, 내 인생 여정 중 행복했던 기억들의 대부분이 고척교회에서의 만남이었고 고척교회를 떠난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으며 고척교회가 참 좋습니다.

장로로 부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이 필요하시어 선택하신 것이라는 주위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배 장로님들의 섬김의 모습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

가룟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꾸중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어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던 아론과 훌과 같이 목자를 돕는 자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겪지 않을 것 같았던 삶의 파도를 마주하고

김선배 안수집사(사랑13 유년1부장)

사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초등학교 때였다. 동네 놀이터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봉고차가 와서 우리를 야구 시켜 주겠다고 넓은 들로 인도한 양천구 신정동의 신광교회를 몇 번 다녔고, 그 교회로 다닐 때는 야구할 때 마다 자두와 꽈배기 등 사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또한, 아내를 만나서 처가에서 제시한 결혼 조건이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였다.

장인어른이 다니시는 포이동에 있는 강남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을 뵙고 기도 받고 결혼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장로님으로 계신 강남동산교회로 2~3년 다니다가 집 근처 교회로 가는게 믿음을 키우는 데 좋을 것 같다는 장인어른 말씀에 따라 지금 살고있는 집 근처인 고척동의 고척교회를 인근 여러 교회에 가보고 결정하게 되었는데 참 잘한 일인 것 같다.

삶은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고, 사람에 더욱 물드는 것 같다.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현실에 무릎 꿇고 사회에, 세상에, 사람에, 순응하면서도 항상 나의 마음의 중간에는 다행이도 예수님이 계셨다. 고척교회에 등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두하장로님 전화가 왔다.'주일학교 교사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수락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잠시 성가대에 몇 년 활동하다가 다시 유년부 부장으로 섬기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직장에 다니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삶에 찌들어 살면서, 바쁜 가운데 누군가는 나보고 쉴 시간도 없고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삶에 지치고 힘든 순간 약하게 다가온 순간보다 쓰러져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순간에 눈물 흘리게 하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다. 살면서 난 겪지 않을 것 같았던 삶의 파도를 마주하고, 그 파도에 정면으로 얻어맞아 쓰러지는 순간에 나에게 내려오는 한줄기 빛, 나의 죄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

지난 2023년 10월 8일 안수집사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양가부모님, 아내, 아들, 딸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생각하며 오늘 주일도 새벽5시에 일어나 할렐루야 찬양대와 유년1부 부장을 감당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 감사합니다.



권사 임직 후 주시는 마음

윤경미 권사(은혜33)





분주했던 임직식을 끝내고 차분히 돌아보니 모든 과정이 참 감사했다. 피택자 교육 기간 과제였던 책,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강의와 조별모임에서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이다. 그 중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예수 동행 일기'라는 과제였다. 사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쓰다 보니 습관이 되었고 여전히 기쁘게 쓰고 있다.

아침 QT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믿음 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다 여기며 살았는데,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하루 동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며 기억하게 하셨고, 상황 상황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는 습관을 갖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고백하게 하신다.

임직식 날, 많은 선배님들이 함께 사역한 사이가 아님에도 편지와 선물을 주시며 앞으로 감당할 일들을 격려해 주셔서 당황스럽고도 감사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묵상하게 하시며 나 또한 앞으로 임직하게 될 후배님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사랑임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의 흐름이야말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아름다운 일임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었다.

권사라는 호칭이 아직은 어색하고 쑥스럽다. "자꾸 불려야 익숙해져~" 하시며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 오늘도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된다. 앞으로 맡기시는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 혼자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귀한 동역자들과 기쁨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권사가 되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으로 나아간다.

멋진, 믿음의 크리스천 사장님

김석호 은퇴협동안수집사(사랑1)

지난 11월11일 봉사부 소속 상례팀(팀장 : 김병곤 은퇴안수집사)이 믿음의 기업 (주)다인테크 / 에이엘시스템』 사업장 탐방 겸 심방을 오셨습니다. 평소 함께 사역하는 교우님들의 심방이라 더욱 뜻 깊었습니다.

하나님이 교우들 사업을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시간 이었고 믿음의 기업들이 불황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안에 세워 지기를 함께 기도 해 주셨던 귀한 시간 이었습니다.

우리회사 (주)다인테크는 2007년 1월 31일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자”라는 설립이념을 가지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46, 44-4, 42번지에 각각 대지: 4,500㎡(약1,300평)과 3,500㎡(약1,000평)의 부지에 2022년에는 매출 80억원을 2023년은 매출 90억원을 목표로 하는 종합하드웨어 생산 공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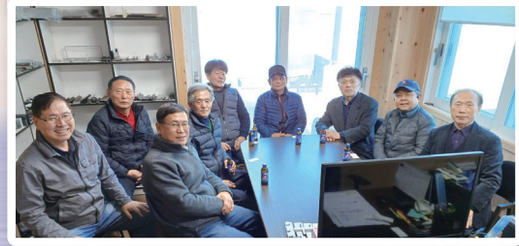


(주)다인테크는 이상적인 생활공간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보다 편리하고 미려한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의 선용함을 극대화하고, 가구 산업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시스템가구 사업부를 새로 시작하여 시스템가구와 주방가구의 빌트인시스템 상품개발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1세기의 주도적인 기업으로써 관련업종과 사회에 꼭 필요한 회사가 되겠다는 이념으로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봄, 믿음 생활에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어 할 때 저희 가족을 고척교회로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섬기는 상례팀!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정엄마와 함께했던 추억도 떠올리며

고척교회 책마을 지기(글 : 장소영 집사)

안녕하세요. 10월 11일과 18일 이틀동안 그림책으로 떠나는 여행 특강이 있었습니다. 첫 시간은 방정환 선생님의 대표작 <만년샤쓰>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드시고 어린이를 존중하고 우리의 미래라고 하셨지요. 방정환선생님이 쓰신 〈어른에게 드리는 글〉과 〈어린이에게 전하는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린이를 바르게 키우는 일이라고 하셨고, 병으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시지만 않으셨어도 더 밝은 세상을 위한 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함께 마음에 와닿는 글과 그림을 고르고 좋은점과 읽으면서 불편한 부분도 적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어린시절이 기억나기도 하고 우리 자녀의 입장도 돌아보게 되고 친정엄마와 함께했던 추억도 떠올리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그림책을 읽으며 그 속으로 한 발 두발 들어가 주인공의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고 또 반대 입장도 되어보며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 궁금한 부분을 서로 알아가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 창남이는 주권을 빼앗기고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이고 어머니는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이 반쪽만 불에 타다가 멈춘 우리나라의 상황을 빗대어 그린 그림책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분단국가에서 몸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신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나라와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추워지는 겨울이면 생각나는 〈만년샤쓰〉의 소년 창남이! 슬픈 현실을 꿋꿋하고 밝게 견디는 창남이 같이 우리 앞의 힘든 일들과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도 밝고 따스하길 바랍니다.



그림책 읽는 엄마 모임

[그림책] 방정환 선생님의 대표작 〈만년샤쓰〉





말의 힘

최상선 집사(신상도초등학교 교사/섬김14)

한 학기에 한 번씩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습니다. 학교에 갓 입학을 시킨 1학년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 친구들과의 관계, 학습 습득 수준 등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평소 아이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1학년 수업을 잘 따라가나요?"라며 학습 능력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반면 요즘은 "우리 아이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나요?"등 교우관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지난 10월 상담주간에 한 학부모님께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한 친구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리를 바꿀 때 짝이나 모둠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에 덧붙여 2학년으로 진급할 때 같은 반이 안 되게 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두 친구가 짝이 되면 틈만 나면 아웅다웅 싸우게 되니, 교사는 쉬는 시간마다 솔로몬이 된 것처럼 서로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바꿀 때 해당 아이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가능한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교사의 일이 됩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유난히 다툼을 많이 하는 아이들 간의 갈등의 원인을 '말'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니가 뛰어 다녀서", "난 진짜 억울해."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1학년은 아동 발달 단계상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유난히 남 탓하는 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끼리는 아주 사소한 상황에도 많이 부딪힙니다.

이에 비해 어떤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교사에게 와서 귓속말로 "선생님, 다음 달에 ○○이랑 짝하게 해 주세요." 라며 용기를 내어 수줍게 부탁을 합니다. 또래 친구들이 짝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긍정적인 말, 배려하는 고운 말로 친구들을 인정하고 칭찬을 잘 합니다.

(잠언 10:19)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5:4)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과 잠언을 읽다 보면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이 상대를 살리게도 하고 죽일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어의 사용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하여 알려 주십니다.

(잠언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길 중 하나는 '언어의 길'입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언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법은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통해 입술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심 속의 공원이 주는
여유 N Healing

이국적인 풍경과 함께 색다른 연말연시,
〈센트럴 파크〉

글·사진 이 은 경 권사(사랑 39,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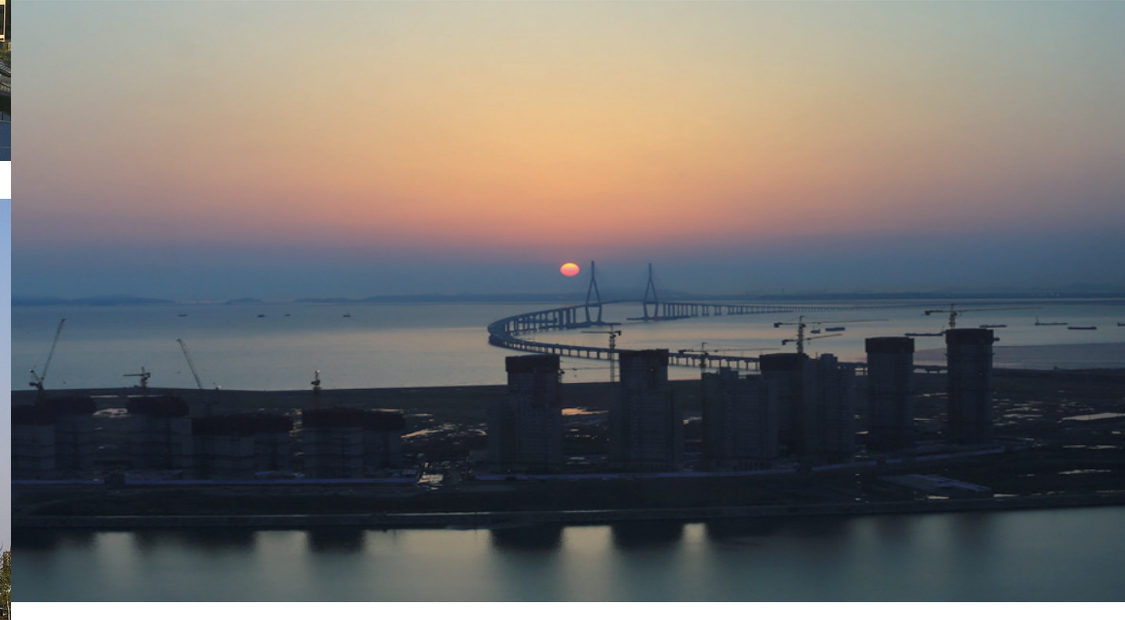
인천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센트럴 파크〉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외국의 어느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공원처럼 이국적인 감성이 물씬 풍겨나는 곳이다.

그 곳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국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세련된 감성의 공간이다.
즐길 거리와 볼거리도 많고, 주차시설도 좋은 편이며,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성이 좋아 어느 계절이든 가족이나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된다.









먼저 G타워 전망대는 33층에 위치한 곳으로 전망대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올라가면 동서남북으로 송도 신도시 주변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늦은 오후 시간에 가면 인천대교가 멋지게 어우러진 일몰을 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가 있다.

가능한 대중교통(센트럴파크 역)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고 여유로운 산책이 될 것이고, 자가용을 이용해 센트럴 파크를 방문할 때는 G타워 전망대 주차장에 무료 주차(주말)하거나 센트럴파크 주차장에 유료 주차하고 공원을 즐길 수 있다.


posco
E&C







G타워 전망대는 탁 트인 360도 유리창을 통해서 센트럴파크의 멋진 전경을 조망하고, 인천 바다의 전경과 경제 자유 구역의 면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센트럴 파크는 호수를 중심으로 잘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전시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 〈트라이 볼〉과 예쁜 조명이 켜지는 주변의 건물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주변의 주상 복합 아파트들도 밤이 되면 조명이 알록달록 켜짐과 동시에 호수에 비친 반영이 생기면서 낮보다는 밤에 한층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준다.





센트럴 파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산책하기 좋은 곳이기도 하고, 수상 보트 등 다양한 놀거리나 공연 등의 볼거리도 많은 도심 속 여유와 힐링의 시간을 갖기에 참 좋은 곳이다.

어느덧 올해의 끄트머리에 와있는 요즘, 송도 〈센트럴파크〉에 가서 이국적인 풍경과 함께 색다른 연말연시를 느껴보길 추천한다.

'24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싣고 씽씽씽!

장은주 목사(영아부)



하반기 영아부 신앙교육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임을 명확히 고백하고, 자녀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신앙교육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아부 하반기 주요 활동을 소개해드립니다.

1. 부모님과 함께하는 40일 기도운동

'전교인 40일 기도운동'에 아기들과 부모, 교사들도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2. 아빠반 소그룹모임

아빠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충과 고민을 나누고, 믿음의 계보를 잇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가장이 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3. 종교개혁주일 특별활동 "복음의 꽃을 피워요!"

종교개혁 5대 강령이 담긴 '복음꽃'을 제작하고 나누며, 교회와 가정, 개인 일상 가운데서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신앙적인 부분을 찾아보고 복음의 기초를 새기는 소중한 시간었습니다.

4. 추수감사주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풍성한 기쁨을 나누는 추수감사주일로 올려드렸습니다.

5. 행복한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 4주간 신앙교육'과 '성탄축하발표회'

12월은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반짝이는 트리와 가렌드로 장식하고 '말씀놀이 묵상집' '대림절 캘린더' 등을 통해 가정연계 교육을 하였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발표회를 가졌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영아부 아기들과 부모,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내고자 다짐했던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싣고 씽씽씽~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영아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와 가정이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아부!

| 한국희 전도사(유아부)

지난 한해 유아부 기도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애쓴 해였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면 아이들은 예쁜 두 손을 모아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전도사님 혹은 부장님과 꼭 안고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아이들의 따듯한 체온을 느끼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매달 첫째 주일에는 “생일잔치”를 하며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깔모자를 쓰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친구들 앞에서 생일축하를 받는데요. 처음에는 긴장한 듯 하다가도 생일선물을 받을 때는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하지요.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서 2주 전부터 모여서 “인형극”을 준비하고 녹음하는 시간을 가졌고, 선생님들과 열심히 준비한 인형극을 아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일상 속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유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올 한해도 기쁨의 넘쳐났던 유치부

김바램 목사(유치부)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 알 수 있어요~"♬
교회 학교 시절 한 번쯤 불러보고 들었던 찬양이지요. 비록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은 잘 알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은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의 큰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의 기쁨'

유치2부는 새롭게 찬양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일찍 와서 기다리며 찬양 연습하는 유치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하하! 웃으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연합의 기쁨'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 사랑과 말씀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단단해지고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고척교회와 유치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쁨'

유치부의 추수감사절은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감사했던 것을 벗꽃잎, 나뭇잎, 은행잎, 눈꽃을 통해 감사 나무를 채워가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의 기쁨'

기도와 섬김의 수고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귀한 위로와 상급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더욱 기대되는

24년 새해 유년부

임에녹 전도사(유년부)

푸르고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살랑이는 10월의 멋진 날에 유년부 교역자로 부임하게 되어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금세 흘러갔습니다. 티 없이 해맑은 웃음과, 목청 껏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며,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목소리와 몸짓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더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2024년을 준비하며 가장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흠뻑 젖는 아이들'입니다. 말로 표현못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이들이 더욱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으며 마음껏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유년부 친구들 또한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넘치는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겉모습만으로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 강이삭 전도사(소년부)

소년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반기 동안 나눴던 소년부 말씀을 가지고 반별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혹시 반별 퀴즈 대회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이 덜 부담이 되도록, 퀴즈가 열리기 전의 3주 동안 매주 주일 말씀 시간 전에 하반기 말씀을 핵심 키워드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퀴즈를 진행하기 전, 저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1부 아이들과 활발하고 유쾌한 2부 아이들의 퀴즈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퀴즈 대회의 결과를 보니, 1부와 2부 아이들의 결과의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동안 평소 예배 시간 때 다른 아이들보다 덜 집중하고, 개인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이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문제의 답을 더 잘 기억하고 정답을 적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보였습니다. 이 모습으로 아이들을 겉모습만으로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년부 교역자로서 사역에 대한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소년부 아이들이 소년부에서 성경 지식을 잘 배우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알맞게 적용하며 학교와 가정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이 글을 보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중등부

박동운 목사(중등부)



중등부는 변함없이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새 생명 전도 축제와 함께 중등부도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사춘기 기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중등부 친구들은 보이지 않게 누구보다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새 생명 전도 축제에 새롭게 온 친구들이 무려 12명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변함없이 심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떡볶이 사주세요!’가 업그레이드되어 ‘목사님 마라탕 사주세요!’의 줄임말로 ‘목마사’ 심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방 흘러가는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알고, 만나고, 따르는 자녀로 거듭나길 소망하며 심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감사의 달에 중등부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렸습니다. 직접 가지고 온 과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와 함께 깊은 묵상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만든 제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2024년 새해,
하나님이 열어 주실 미래를 향해

김재광 목사(고등부)

지나간 가을 끝자락에 이를 때면 고등부는 매년 고3을 위한 기도와 격려의 시간이 중심에 서게 된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학업과 진로를 위해 달려온 고3들에게 수능 시험과 수시 면접, 실기시험, 기업 입사를 위한 도전의 시간이 하반기에 있다.



그래서 특별 심방으로 9월 한달 동안 고3 학생들 한명씩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기쁨 교구 정미진 집사님을 고등부로 초청해 바뀌는 입시에 대한 특강을 듣고 고등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지금 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11월 수능 전날에는 수험생을 위한 담임목사님 축복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담임목사님께서 축복 안수 기도 해주셨으며 수험생들이 격려 받는 귀한 시간이었다. 고3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축복한다. 12월에는 고3 졸업 여행, 성탄절 올나이트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해를 돌아보니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다시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2024년 하나님이 열어 주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청년부 소식

이윤아(청년부/편집위원)

1. 10월 18일 ~ 12월 03일 – 2023년 청년공동체 총회

청년공동체에서는 매년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 여름에 진행되는 가장 큰 행사가 여름수련회라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때쯤 진행되는 가장 큰 행사는 총회이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2024년 청년공동체를 임원이라는 직분으로 섬기게 될 회장과 총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부총무, 서기, 회계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2024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고척 청년공동체가 내년에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한다.

2. 12월 03일 – 2023 청년공동체 사역자 격려의 밤

올해도 청년공동체에서는 많은 리더십들이 최선을 다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공동체를 섬겼다. 그런 리더십들을 위해 12월 03일 예배 후 청년공동체의 리더십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역자 격려의 밤을 진행하였다.

매년 진행되는 사역자 격려의 밤은 청년공동체의 리더십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식탁교제를 하고 즐기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이다. 새해에도 우리 고척 청년공동체는 여전히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귀한 공동체일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경험하며,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기를 기도해본다.

